

# 새 총리 후보에 김부겸

### 문 대통령 지명... 국토 노형욱·산업 문승욱 등 5개 부처 장관도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적 쇄신을 위한 개각을 단행했다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내각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권력 누수를 막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양수점장의 쇄신책으로 풀이된다.

인사문화회합상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과정을 통과하면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국무총리에 오르게 된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까지는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교대, 대구중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 담았던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제16대,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발탁돼 국무위원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며 5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 후보자는 진여 입기 1년 동안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관리형 총리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노 전 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기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예산봉사로 꼽힌다.

노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번 개각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는 갈등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진하며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취지다.

새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내정됐다. 서울 출신인 문 후보자는 서울 성동고등학교

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정부직 경험을 갖춘 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산업정책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력과 추진력도 발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준형 현 해수부 차관을 내정했다. 경기 이천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경기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양수산 업무 전반을 두루 거처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당선됐으며 한일 한중 어업협상을 주도한 해양수산 분야의 '기획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 안 후보자는 강원 홍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노사관계, 산재인건, 고용정책 등 다양한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경험으로 노동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임혜숙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발탁됐다. 임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송곡고,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에서 학사·석사·미 석사수립대에서 전기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시스

## 민중 전북도당 여성위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지난 16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김성주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과 극복의 의지를 밝히며, 여성당원이 앞장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단합된 힘과 참여로 민중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에 이바지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의 길로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응집력과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 혁신해 수권정당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자 도당 여성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이 앞장서 민중정권 재창출에 이바지 하겠다"고 역설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은 박희자 도당 여성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전북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26일까지 본격 의정활동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38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조례안 및 계류 의안 등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현지 의정활동을 펼친다.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원수(임실)·김희수(전주6)·김이재(전주4)·이명연(전주11)·오광근(전주2)·김정수(익산2)·홍성임(비례)·김만기(고창2) 의원 등이 지역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조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 권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20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전라북도 고교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건(조례안 20, 동의안 7, 건의·결의안 2)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380회 임시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유호상 기자

## 김이재 도의원 "노년층 디지털 문해교육 관심 필요"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4)은 "음식잡자 문화 생활 공간에서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가족들과 소통하려면 스마트폰과 SNS를 할 줄 알아야 하는 사회가 되페버렸으며,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사회와 단절되는 소위 '디지털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을 예로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민중 윤준병 의원, 공식 홈페이지에 '쓴소리의 창' 개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첫 해, 본인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쓴소리의 창'을 지난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으로 서 지역과 민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1년 동안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주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쓴소리 게시판은 윤준병 의원 공식 홈페이지(http://treminh.com)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명과 익명을 선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윤준병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 제안을 비롯해 지역 현안, 사회적 이슈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 없이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지난 16일 일자리 정책평가 시상식을 갖고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처장기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에 기관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 전북도,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 정읍·고창 '최우수', 김제·순창 '우수'

### 정읍 청년창업챌린지시습·고창 민간 일자리대책 체계 구축 김제 일자리위원회·순창 투자선도지구 조성 추진 '결실'

전북도가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이하 일자리 정책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정읍시·고창군 우수 시·군으로 김제시·순창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일자리 정책평가 시상식을 갖고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처장기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에 기관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정읍시와 고창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7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포상금은 일자리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친 우수 시·군을 선정·포상해 시·군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일자리 사업추진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인구·제조업·고용환경 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고용률·취업지원실적·일자리창출 노력도·홍보 및 네트워크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로 수상한 정읍시는 참례한 구도상에 '청년창

업챌린지'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정책에 반영, 전농산업 기술을 지역청년에게 전수하는 '슈메이커 양성사업'을 추진, 전농산업 보존과 창업 활성화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최우수 시·군인 고창군은 민·관으로 구성된 일자리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로컬JOB센터·시니어클럽 등 중간조직을 활용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곡, (주)대흥 등 16개 기업을 유치, 일자리 1,428개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추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김제시는 지난해 민간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축해 일자리 현황점검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취업률을 상승시키는 등 눈에 띄는 고용 지표 개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근로자의 고용지원과 경제산업과 연계한 중장기 고용안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개보수 공공요금,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해 500여 명 고용유지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 기반시설과 관광융복합시설을 동시에 구축, 고용창출과 관광효과를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북지역 고용상황이 올해 1월을 저점으로 2개월 연속 취업자와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감소했고, 3월 전북 고용률(60.9%)은 전국 평균(58.8%)보다도 1.1%p 높은 수준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펼친 일자리정책의 기인효과로 보여진다.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처장은 시상식에서 "우수 시·군 선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펼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타 시·군에 공유해 지역 일자리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도에서는 시·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지역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소부장 산업 경쟁력 확보

### 정호윤 도의원, 육성 조례 발의

지난 2월 탄소산업으로 특화된 전북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도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 조례 제정에 전북도의회가 나섰다.

정호윤 도의원(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 육성 조례안'은 지난 9일 발의돼 19일부터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상정돼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부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과 기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투자기금에 대한 입지공급 등에 관한 제반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제조업의 뿌리이자 중심인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도를 높여 전북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고도화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유치 및 해외 시장 진출로 전북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황의탁 도의원, '코로나 이후 농촌관광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이 '코로나 이후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내 대표적인 농촌 휴양 관광지인 영암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북도의 농촌관광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편의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자원을 상품화해야 된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민들을 상대로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무주군 호룡마을을 박희숙 위원장, 김중국 무주리조트 상가협회장 등 지역의 현장전문가들과,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조효일 전북도 농촌진흥과장, 이정석 전북도 관광총괄과 과장이 각각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황의탁 의원은 "오늘의 세미나가 위드코로나시대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며 "코로나 이후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북도가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 살리나

### 나인권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 정서 함양을 위한 '인문적·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19일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행, 관련

계획과 시책을 자문, 심의할 위원회 구성과 제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인문학 관련 법률이 지난 2016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북도 차원의 자체적 규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시행계획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 의원은 "물질민중주의 시대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인문학과 그 정신문화를 통해 사회구성원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조례안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